

○부활, 복음의 핵심(15,1-16,24)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일으켜지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선포도, 믿음도 모두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바오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지시하며, 늘 깨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루라고 당부하면서 사랑의 인사로 끝맺고 있다.

코린토 후서는...

코린토 전서 다음에 나오는 서간성경으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이다. 초대 교회의 선교 상황과 바오로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다. 삼위일체 신앙을(13.13) 가장 명백하게 전해 주는 성경이기도 하다.

저술 연대

바오로는 코린토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통의 편지(‘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요)를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2코린2,4.9 ; 7,8.12). 이 편지가 코린토 후서에 포함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두 통의 편지를 하나로 엮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먼저 쓴 ‘눈물의 편지’의 일부가 10-13장이라 하며, 1-9장은 나중에 보낸 ‘화해의 편지’라고 한다. 하지만 한 통의 편지로 코린토 후서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앞서 보낸 ‘눈물의 편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다만 ‘화해의 편지’만이 전해 지는데, 이것이 코린토 후서라고 주장한다(여기서는 1-9장과 10-13장이 내용과 어조에서 서로 많이 다르므로, 두 통의 편지로 이루어졌다는 견해에 따른다). 대체로 이 두 통의 편지는 55-57년 사이에 쓰였으며, ‘눈물의 편지’는 에페소에서, ‘눈물의 편지’보다 반년쯤 뒤에 쓰인 화해의 편지’는 마케도니아에서 썼다고 본다.

저자

사도 바오로가 직접 썼다. 바오로가 쓴 편지들 중에 코린토 후서만큼 격양되고 흥분된 어조로 쓴 편지는 없다.

저술 목적

바오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문제로 티토와 다른 협조자 한 사람을 코린토 교회에 파견하지만, 바오로가 세운 코린토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오로를 반대하고 바오로의 사도직을 부정하면서 이 파견자들을 거부한다. 이때 코린토 교회 신자들은 이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 있었다. 이에 바오로가 직접 코린토 교회를 방문하지만 바오로 역시 심한 비난과 모욕을 받고 에페소로 떠난다. 슬픔에 싸인 바오로는 본의 아닌 자랑까지 섞어가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불림을 받아 사도직을 행해온 과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함과 동시에 코린토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눈물의 편지’(10-13장)를 쓴다. 이 편지를 전해준 티토의 응답을 기다리다 못해 마케도니아까지 달려간 바오로는 티토에게서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오로를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였으며, 바오로와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받게 된다. 이에 바오로는 화해의 기쁨을 전하면서 사도직의 참된 길과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형제애를

바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완결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화해의 편지’(1-9 장)를 띄운다.

주요 내용

코린토 후서는 모두 13장이다. 사도 바오로를 거부했다가 회개하고 화해하는 등 코린토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으로, 코린토 교회의 구원과 모든 교회의 일치에 대한 사도 바오로의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뿐(1,1-7,16)

코린토 교회가 자신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먼저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 동안 자신이 받은 오해에 대해 변호하면서 사도직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다. 사도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계약의 봉사자’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모든 이를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화해의 봉사자’로서, 모세보다도 위대한 몫을 맡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은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여러 환난을 당해왔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신뢰와 희망 안에서 기쁘게 살아왔다고 한다. 설령 앞서 보낸 ‘눈물의 편지’가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을 슬프게 했을지라도 교우들이 회개하였으니 후회하지 않는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

○은혜로운 선행을 완수하십시오(8,1-9,15)

코린토 교회와 화해하는 기쁨을 전한 바오로는 이제 지난 번 티토를 통해 청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완결하도록 권고한다. 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꺼이 아니 능력 이상으로 이 선행에 참여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을 모범으로 들면서, 서로 베푸는 너그러움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의로움의 수확을 늘려 주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코린토 교회를 격려하고 있다.

○내가 찾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재물이 아닙니다(10,1-13,13)

이 부분은 앞의 1-9장보다 먼저 쓰여 코린토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의 일부로 여겨지며, 시종 흥분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바오로를 보게 된다. 바오로는 누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똑바로 보라며 반대자들과 코린토 교회의 교우들을 꾸짖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세우시는 그런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자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실이 있다는 확신을 전한다.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고뇌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받은 계시를 본의 아니게 자랑하면서도 자신의 약점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한편 소위 거물급 사도들보다 모자라지 않음을 역설한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아 코린토 교회의 교우들이 교화되어 구원받기 바란다는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전하고 있다.